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 광주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Stress of Housewife received in the Family Life and Psychological Distress

— From the Housewives living in Kwangju city —

목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 김 미 현

서강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류 절 숙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신 효 식

Dept. of Home Management Mokpo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 Kim, Mi-Hyeon

Dept. of Liberal Education for Woman Seokang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 : Ryoo, Jom-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Shin, Hyo-Shick

〈 목 차 〉

I. 서론

III. 연구방법

V. 결론 및 제언

II. 이론적 배경

IV. 결과 및 분석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ss of housewife received in the family life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housewife.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ch conducted a survey by using questionnaire developed by former resear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418 Centering on the housewives living in kwangju. The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 tendency of

the stress level of housewife received in the family life is relatively low. 2) The household background variables(duration of marriage, level of education, husband's occupation, income, leisure actives, socio-economic status)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stress level of housewife received in the family life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housewife. 3) There are positive corriations between housewife's stress received in the family life and psychological distress level of housewife. 4)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housewife was greatly influenced by variables such as the health problem.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추세는 가정내·외적으로 빠른 변화와 성장을 초래하였으며 새로운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들은 외면적으로는 핵가족화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이효재, 1983).

또한 이러한 변화추세는 가정의 구조적 형태와 가치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발전에 따른 개인의 욕망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정우, 1992). 특히,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역할전이를 크게 경험한 주부들의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내에서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순종하는 여성상을 최대의 현모양처 상으로서 교육받아 온 기혼여성들은 그 동안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교육수준의 향상·자아실현의 추구·가정기기의 발달에 따른 가사노동의 단순화·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많은 생활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회제도와 가족내의 가치관은 아직도 상당부분 전통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현대 주부들은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요구했던 주부의 역할과 현대 핵가족에서 요구하는 주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구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

라 야기된 개개의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김경아, 1990).

이러한 현대 주부들은 가정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중한 역할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신체적 불건강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최근 기혼여성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미혼남녀나 기혼남성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Bernard, 1982)로 심리적 불안, 우울, 긴장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기혼여성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나동석, 1980)는 실제 보고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은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정신·신체적 건강은 주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정서적 중심점인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가 인지하는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문제와 이로인한 심리적 손상정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주부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내의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정관리능력의 저하를 방지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나마 현 가정생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주부가 지각하는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정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주부의 연령, 결혼지속연수, 주부의 교육수준, 자녀수와 막내자녀의 나이, 가족형태, 남편의 직업, 월평균 가계수입, 종교, 여가활동정도,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주부가 지각하는 심리적 손상 정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주부가 지각하는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4〉 주부가 지각하는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기초하여 구성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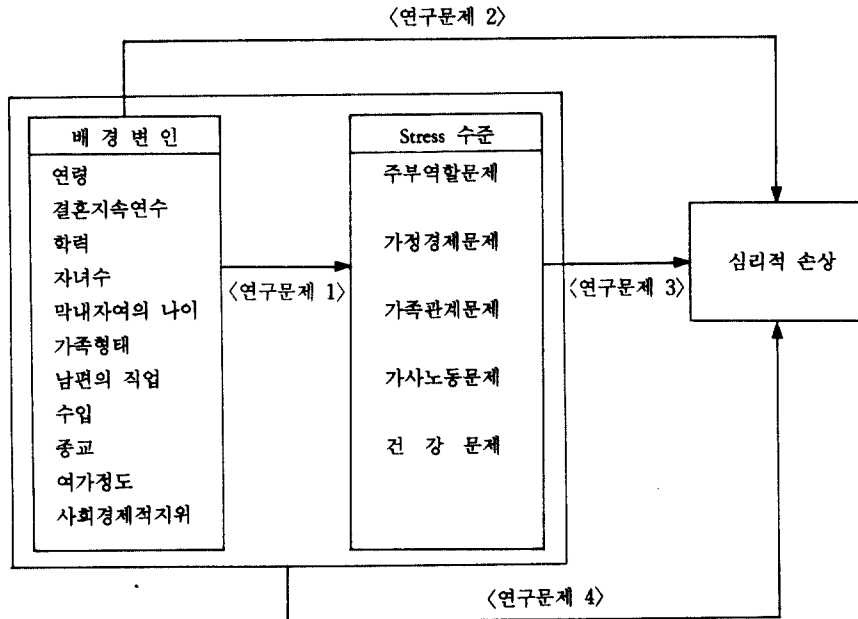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생리 및 심리·사회적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세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①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 이 개념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초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들은 주로 이 입장을 취하여 왔다.

어떤 특정한 반응 또는 반응군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인데 주로 유해한 자극과 신체적·정신적·생리적 기능의 변화와의 관계를 주제로 삼아 GSR (Galvanic Skin Response)의 변화나 ACTH(Adrenocortical Hormone)의 파생같은 신체기능의 변화를 골



〈그림 1〉 연구모형

스트레스의 증거로 보았다.

②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대부분 생활사건에 초점을 두어 이를 질병과의 관계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으며 Lazarus와 Folkman(1984)은 일상생활의 문제거리가 스트레스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척도(Daily Hassles Scales)'를 개발하여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고 있고, 생활사건에 초점을 두어 Holmes와 Rahe(1967)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응 척도(SRRS)'도 스트레스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③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 이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혹은 반응 그 자체가 아니고, 개인이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요구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김정희, 1987). 다만,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보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최해림, 1986)는 또 다른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스트레스 구조를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방법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2.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현대 주부들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접근될 수 있다. 과거 전통 농경사회에서 경제적 생산의 역할을 맡은 주요한 가내노동력이며 정서적 구심점이던 여성이 산업화의 진전으로 가정의 경제적 생산력이 사회로 이양되고 여러기능들도 사회로 분업화 됨에 따라 여성의 전통적 역할은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어 자신의 지위상실에 따른 무가치함·비애감 등의 감정을 초래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을 크게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최외선, 1985). 또한, 많은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막대한 가사노동의 양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수행의 가치나 보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도 모호하며 대부분 일률적으로 부과되

는 단순하고 비체계적인 도구적 역할(Gove & Tudor, 1973)이라는 사실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주부들은 교육기회의 증대와 매스컴의 발달에 의하여 전통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으로서의 자기실현, 자기개발의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부들은 가정에서의 그들의 역할수행을 통하여 더욱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커지며(박난희, 1987) 또한, 남성들이 다양해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데서 긴장감과 갈등을 갖게 되었다(이효재, 1971).

주부의 스트레스 및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나동석(1980)은 가족원의 불화, 부부간의 문제, 가족원의 질환, 경제문제, 가족원의 사망의 순서로 대부분 가족원간의 인간관계와 가족원의 우환 등으로 설명하였고, 유도진(1971)은 혼전이나 혼후의 부정, 성격차이, 남편의 폭력, 경제파탄, 학대, 성적불만, 과음 등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주부 스트레스를 설명하였으며, 배영숙(1982)은 경제적 어려움을 수위로 하여 심한 피로감, 식습관의 변화, 가족원과의 다툼등을 여성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심인숙(1981)은 여성정신장애의 유발요인으로 크게 배우자문제, 가정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나뉘어 설명했고, 이광주(1988)는 자녀 양육태도, 남편의 음주 및 늦은 귀가, 남편의 퇴직 및 질병, 남편의 직업전환 및 사업실패, 남편의 직장내에서의 책임감 증가 및 인간관계의 불화, 경제적 곤란, 배우자의 사고나 중병 및 실직, 부부간의 성생활로 분류하였고, 장병옥(1985)은 주부의 스트레스요인을 가정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기타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의 영역에서 현실과 성취사이의 불일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가정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역으로 부정적인 결과, 즉 심각한 가족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요인을 주부역할문제, 가정경제문제, 가족관계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의 영역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주부의 심리적 손상

스트레스란 원래 디스트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포괄적 견지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두개념을 구별하여 각기 다른 도구에 의해 측정되기도 한다.

McCubbin과 Patterson(1981)에 의하면 가족성원들이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였으며 Veit 와 Weir(1983)의 정신건강구조를 참고하면 긍정적 정신건강상태 즉 일반적인 긍정적 기분과 같은 심리적 복지와 부정적 정신건강상태 즉 불안, 우울,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인 손상을 많이 입고 있으며,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문제거리나 근심등을 겪을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을 뜻하며 한편 디스트레스를 받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정신건강의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이론적 모델에서 중요한 체제로 간주되고 단독으로 사용되며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Bernard,1982; Gove & Tudor, 1973; Radloff,1975)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미혼남녀나 혹은 기혼남성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을 통해 획득한 가정관리자의 지위나 가정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 심리적 불안, 우울, 긴장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기혼여성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실태보고서(Chesler, 1972 ; 나동석, 1980)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바침하고 있다.

Stress가 여러가지 심신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울에 빠지고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초조하고 안달하거나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거나 때로는 어린애와 같이 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고 식욕이나 성욕이 쇠퇴해지고 무기력, 무관심에 빠지는 일도 있다.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늘어 호흡이 빨라지고 불규칙하게 되어 수족이 차가워지고 입이 마르고 소화가 안되게 된다.

Selve(1956)는 스트레스와 질병을 관련시킨 연구에서 만약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강도가 고조된다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일반적 질병으로는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기관지천식, 관절염, 신장질환, 알콜중독, 불면증, 암, 신경증등 이라고 했다. 또한 Brown(1972)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과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살기도, 신경증과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이평숙(1984)의 연구에서도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생활스트레스임이 밝혀졌다.

한편 이세종(1974)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증상은 30대 와 40대 가정주부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을 계속 경험하면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연령 : 심인숙(1981), 남유리(1989), 이광주(1988), 김경아·이정우(1990)는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아와 이정우(199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양적으로 증가되어 관리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결국, 이에 따른 긴장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난데 기인한 결과라고 보았다.

반면에 김영규(1980), 박난희(1987), 전세경(1988)은 연령과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과는 큰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2)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건강문제영역에서 디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했으며(권경희, 1985) 자녀교육, 가사노동관리 및 의사결정권의 변화, 중년기의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결과로 결혼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장병옥, 1985) 자녀양육태도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이광주, 1988). 이는 연령증가에 의한 신체적 노쇠와 외모의 변화에 기인한 자존심의 상실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Mareck(1978)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심인성 장애의 입원환자 비율을 보면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민병근외, 1975 ; 오석환외, 1973) 연령이 증가하고 성격이 분화 발달됨에 따라 복잡한 심리기제를 동원하여 긴장을 처리하게 됨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왕성근, 1978).

3) 학력 : 권경희(1985), 배종렬(1985), 장병옥(1985), 남유리(1989), 김경아와 이정우(1990)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관리시 자원의 활용과 스트레스원인 파악의 능력이 풍부해져 인지하는 스트레스량과 심리적손상은 적어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학력과 스트레스 수준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송금순, 1984 ; 이광주, 1988 ; 전세경, 1988)들도 상당수 있어 단편적으로 학력만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4) 자녀수 :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늘어나고, 양육과정시 시간의 결핍과 활동의 제약이 야기되므로 스트레스량도 증가된다고 하였다(김경아·이정우, 1990 ; 송금순, 1984 ; 이광주, 1988). 반면, Uhlenhuth(1974)의 연구에서는 가족크기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언하면 자녀수가 주부의 스트레스량에 영

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녀수가 많음으로써 생기는 가사노동의 증가, 경제적 부담의 증가등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5) 막내자녀의 나이 :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의 스트레스(배종렬, 1985) 그리고 디스트레스 수준(권경희, 1985)이 높았다. 자녀가 많거나 어린자녀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주부에게 과중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며 성인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박탈하므로 주부는 역할긴장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모성역할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기대가 주부들로 하여금 기대와 실제경험간의 괴리를 느끼게 하며(Rollins & Calligan, 1978) 자녀교육은 성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좌절을 경험하기 쉽다. 이로 인해서 주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뿐 아니라 결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6) 가족형태 :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따른 스트레스량에 대해 박난희(1987)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 반면, 이정우·장병옥(1987)은 핵가족일때 최순순(1987)은 확대가족일때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다고 나타나는 등 연구마다 불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효재(1984)는 현대의 부부중심가족이 애정생활과 긴밀한 유대를 기반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관계가 노골화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갈등은 주부의 불안과 좌절을 초래하여 심리적 손상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7) 수입 : 권경희(1985)는 높은 소득은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나 이들간에는 일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남유리, 1989 ; 정민자, 1983)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각 하위영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을때 생활상에 불안정한 요소가 더 많이 존재하므로 소득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8) 종교 : 송정명(1975), 김윤주(1977), 맹희재(1985)에 의하면 종교와 스트레스와는 높은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Uhlenhuth(1974)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9) 여가정도 : Ray(1979)는 여가활동 추구가 건강 다음으로 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었고 Campbell(1976)등의 연구에서도 여가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행복과 가장 강력한 관련을 갖는 단일 영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사회생활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단조로운 가사작업의 반복과 좁은 인간관계의 테두리내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에게 여가활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이 시간은 가정생활 활동의 단점인 고립감, 사회적인 접촉의 부족, 일상적인 일로 인한 불만을 상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10) 사회경제적 지위 : 이평숙(1984), 이광주(1988), 김경아·이정우(1990)의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수준과 사회계층간에 반비례관계가 있다고 한 반면 이들간에는 일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상반된 연구(남유리, 1989 ; 장병옥, 1985 ; 전세경, 1988)들도 존재한다.

또한 Hutchison(1974)은 중류계층에서는 부모-자녀문제를 하류층에서는 가족부양문제가 심각한 문제 영역이라고 하였다.

남편의 직업지위로 기혼여성의 사회계층을 분류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스트레스 상황하에서는 계층간의 디스트레스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Turner & Samuel, 1983). 그러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계층간의 디스트레스 차이는 크게 벌어지며 저소득계층일수록 디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주부에게 있어서는 계층간의 디스트레스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이상의 학령기 자녀를 두고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생활수준, 연령분포등을 고려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에 배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92년 6월 5일-1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2년 6월 20일-2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의 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Holmes 와 Rahe(1967)가 고안한 SRRS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를 고성희, 최태진 등이 한국문화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척도에 기초한 장병옥(1985), 김경아(1990)의 질문지 문항을 근거로 질문내용을 작성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주부역할문제 영역 6문항, 가정경제문제 영역 6문항, 가족관계문제 영역 4문항, 가사노동문제 영역 4문항, 건강문제 영역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 작성되었다.

각 문항은 긴장감 정도에 따라 매우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주부역할문제($\alpha=0.78$), 가정경제문제($\alpha=0.65$), 가족관계문제($\alpha=0.68$) 가사노동문제($\alpha=0.72$), 건강문제($\alpha=0.54$)이다.

2) 심리적 손상의 척도

본 연구에서 주부의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로 Langner의 22-item Screening Score를 번역하여 사용한 권경희(1985)의 척도를 재사용하였다.

Langner지수는 사회적 기능의 수행능력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손상된 정도를 가리키는 지수로서 120개의 특징적인 정신과 증상목록 중에서 Langner가 시행한 Manhattan Midtown연구의 결과에 따라 22개 증상들을 선택하여 만들었다.

이는 정신적 장애의 척도라기 보다 일반적인 심리적 또는 정신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재는 척도로 간주된다. 이 지수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조사척도로 널리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수는 정신장애와 사회문화적 요소간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 하겠다. Langner Index로써 일반적인 정신과 증상들로 인해 일어나는 생활기능상의 손상정도가 대략 어느 선상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심리적 손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2개 증상으로 점수의 계산과정은 증상이 보고되는 빈도에 따라 각 증상마다 1또는 0의 값을 매기게 되며 그 점수들을 합하여 총점을 낸다.

22개의 증상 중 6개는 응답자가 그 발생빈도를 적어도 '다소자주'라고 지적하면 1의 값을 주고 그 나머지 증상들은 '꽤 자주' 일어나야만 1의 값을 주며 드물게 경험하는 증상들에는 0의 값을 준다. 이러한 채점 과정에서는 발생빈도가 심각성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주부의 연령과 학력,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막내자녀나이, 가족형태, 남편의 직업, 월평균 가계수입, 종교, 여가정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구대상자의 학력과 가족의 월수입, 남편의 직업으로 산출하였으며 여가

정도는 7문항으로 정도차이에 따라 5점 Likert형척도로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빈도분포를 사용하였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의 일반적 경향의 제시는 백분율, 빈도분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제 변인간의 관계분석은 Pearson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제 변인과의 관계는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고 채택된 주요 변인이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보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연구대상 주부들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2.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1)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정도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전체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의 평균은 중간점수대인 57.32점(100점으로 환산치 47.77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최저 24점에서 최고 106점까지 비교적 고른 점수 분포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주부역할문제, 가정경제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가족관계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주부들의 산업화 과정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가정내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역할수행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또, 우리가정이 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N=418)

배경변인	집 단	구 분	빈 도(%)	배경변인	집 단	구 분	빈 도(%)
연 령		30-34세	59(14.1)	남편의 직업		생산직	118(28.2)
		35-39세	155(37.0)			판매/서비스직	92(22.0)
		40-44세	137(32.8)			사무직	118(28.2)
		45세이상	67(16.1)			관리직	39(9.4)
결혼지속년수		6-10년	46(11.0)	수 입		전문직	51(12.2)
		11-15년	132(31.5)			49만원 이하	21(5.0)
		16-20년	148(35.4)			50-69만원	68(16.3)
		21년이상	92(21.1)			70-99만원	152(36.4)
학 령		국 졸	44(10.5)	종 교		100-149만원	109(26.1)
		중 졸	133(31.8)			150만원 이상	68(16.2)
		고 졸	204(48.8)			유	269(64.4)
		대졸이상	37(8.9)			무	149(35.6)
자 녀 수		1-2명	161(38.5)	여가정도 ^{*)}		상 (16-35)	141(33.7)
		3	155(37.1)			중 (11-15)	125(29.9)
		4명 이상	102(24.4)			하 (0-10)	152(36.4)
막내자녀나이		0-5세	22(5.3)	사회경제적지위 ^{*)}		상 (10-14)	132(31.6)
		6-10세	155(37.0)			중 (8-9)	138(33.0)
		11-15세	186(44.5)			하 (3-7)	148(35.4)
		16-20세	55(13.2)				
가족형태		핵가족	358(85.4)				
		확대가족	60(14.6)				

^{*)} 집단별 차이검증을 위하여 여가정도와 사회경제적지위의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M+1/2SD 이상, M+1/2SD~M-1/2SD사이, M-1/2SD이하의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표 2〉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정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M	S.D	Mininum	Maximum
스트레스 정도 (120점 만점)	57.32	16.03	24	106

하위영역	주부역할 문제	가정경제 문제	가족관계 문제	가사노동 문제	건강문제
평 균	15.63	13.81	8.73	10.10	9.05
표준편차	5.11	4.72	3.41	3.75	3.56

점 소비지향적이 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과도한 교육비지출, 제한된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야 하는 주부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2) 배경변인과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연구문제1〉인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인지도 차이는 〈표 3〉와 같다.

① 연령 : 연령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건강문제와 가사노동문제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건강문제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았으며 가사노동문제에서는 30대 후반 보다 30대 초반이 인지정도가 높았다.

②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가정경제문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적인 스트레스 인지도도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건강문제에서는 $P<.001$ 수준으로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지며 결혼지속년수가 15년 이하일때보다 16년 이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③ 학력 : 학력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가사노동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 매우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정생활상의 전체적인 문제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김명자(1977), 김정아(1990), 최덕경(1992)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정관리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더불어 향상됨으로서 학력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녀수 : 자녀수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경제문제에서 $P<.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⑤ 막내자녀나이 : 막내자녀나이에 따른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경

제문제($P<.05$)와 건강문제($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막내자녀 나이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⑥ 가족형태 :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는 가족형태 자체보다는 가족 상호간의 우호도나 협동성 같은 관계망에 더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⑦ 남편의 직업 : 남편의 직업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가사노동문제를 제외한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편의 직업이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인 주부보다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속하는 주부들이 스트레스 인지를 낮게하는 경향을 보인다.

⑧ 수입 : 수입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주부역할문제와 가사노동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수입이 높아질수록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소득이 가정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⑨ 종교 : 종교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종교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한 Purisman & Maoz(1970), Uhlenhuth & Paykel(1973), 최영희(1982)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⑩ 여가정도 : 여가정도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여가정도가 중수준일때 문제인지수준이 가장 낮았고, 상수준, 하수준 순으로 나타난다.

⑪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가사노동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 매우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변인	구 분	N	주부역할		가정경제		가족관계		가사노동		건강문제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연령	30-34세	59	2.76		2.29		2.20		2.78	A	2.07	BC	2.44	AC
	35-39세	155	2.49		2.29		2.11		2.38	BCD	2.12	B	2.30	BCD
	40-44세	137	2.66		2.26		2.21		2.54	AD	2.35	AC	2.41	AD
	45세 이상	67	2.61		2.44		2.29		2.60	AC	2.57	A	2.51	A
	F값		1.75		0.84		0.79		2.84*		5.48**		1.84	
결혼 지속 연수	6-10년	46	2.66	AC	2.11		2.09	AC	2.70	A	1.95	B	2.31	AC
	11-15년	132	2.43	BCD	2.21		1.98	BC	2.33	B	2.04	B	2.22	BC
	16-20년	148	2.73	A	2.38		2.30	A	2.56	A	2.35	C	2.48	A
	21년 이상	92	2.63	AD	2.41		2.31	A	2.64	A	2.58	A	2.52	A
	F값		3.05*		2.50		4.50**		2.94*		9.69***		5.19**	
학력	국 졸	44	2.94	A	2.60	A	2.60	A	2.70		2.71	A	2.72	A
	중 졸	133	2.63	B	2.41	AD	2.21	BC	2.43		2.34	BC	2.43	BC
	고 졸	204	2.57	B	2.25	CD	2.13	B	2.54		2.17	B	2.34	B
	대졸 이상	37	2.31	B	1.86	B	1.87	BD	2.54		1.97	BD	2.11	BD
	F값		3.97**		7.62***		5.69***		1.01		6.37***		6.52***	
자녀 수	1-2명	161	2.54		2.22	A	2.09	A	2.49		2.15		2.31	
	3	155	2.68		2.29	AB	2.18	AB	2.51		2.31		2.41	
	4명 이상	102	2.60		2.46	B	2.33	B	2.60		2.37		2.48	
	F값		1.14		3.14*		2.52		0.43		2.22		2.18	
막내 자녀 나이	0-5세	22	2.52		2.18	AC	2.24		2.43		1.95	B	2.28	
	6-10세	155	2.55		2.17	BC	2.14		2.54		2.12	B	2.31	
	11-15세	186	2.67		2.42	A	2.19		2.51		2.30	B	2.44	
	16-20세	55	2.58		2.32	A	2.25		2.56		2.66	A	2.47	
F값		0.63		3.05*		0.30		0.12		6.14***		1.46		
가족 형태	핵 가족	358	2.64		2.32		2.20		2.54		2.27		2.41	
	확대가족	60	2.40		2.16		2.05		2.49		2.18		2.26	
	F값		3.53		1.85		1.49		0.11		0.52		2.23	
남편 의 직업	생산직	118	2.76	A	2.51	A	2.38	A	2.59		2.57	A	2.58	A
	판매/서비스직	92	2.68	AC	2.38	AC	2.27	ACD	2.55		2.18	B	2.43	ACD
	사무직	118	2.52	BCD	2.21	BC	2.01	B	2.51		2.21	B	2.30	BD
	관리직	39	2.58	AD	2.20	BC	2.02	BC	2.42		2.00	B	2.27	BC
	전문직	51	2.34	BD	1.98	B	2.08	BD	2.43		2.01	B	2.17	B
F값		2.85*		5.16***		3.76**		0.40		5.90***		4.78***		
수입	49만원이하	21	2.94	A	2.52	AD	2.49	AC	2.73		2.57	AD	2.66	ACD
	50-69만원	68	2.76	AC	2.54	A	2.44	C	2.60		2.69	AC	2.61	D
	70-99만원	152	2.61	AD	2.35	AE	2.12	AE	2.57		2.28	AE	2.40	CE
	100-149만원	109	2.51	BCDE	2.28	CDE	2.19	ACD	2.42		2.20	CDE	2.33	BEF
	150만원 이상	68	2.49	AE	1.94	B	1.96	BDE	2.44		1.80	B	2.14	BF
F값		2.10		6.04***		3.78**		0.88		10.18***		5.62***		
종교	유	269	2.57		2.30		2.21		2.47		2.26		2.37	
	무	149	2.67		2.32		2.13		2.61		2.26		2.41	
	F값		1.37		0.06		0.75		2.06		0.00		0.35	
여가 정도	상(16-35)	141	2.52	A	2.23	A	2.09	A	2.50	AC	2.18	A	2.32	A
	중(11-15)	125	2.48	A	2.19	A	1.99	A	2.34	BC	2.15	A	2.25	A
	하(0-10)	152	2.79	B	2.46	B	2.43	B	2.69	A	2.43	B	2.57	B
	F값		5.72**		5.21**		11.09***		4.88**		4.31*		9.73***	
사회 경제 적 지위	상(10-14)	132	2.38	A	1.98	A	1.98	AC	2.38		1.92	A	2.14	A
	중(8-9)	138	2.64	B	2.34	B	2.18	BC	2.61		2.26	B	2.42	B
	하(3-7)	148	2.77	B	2.55	C	2.37	B	2.58		2.56	C	2.58	C
	F값		7.87***		19.92***		7.50***		2.36		19.51***		16.84***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3* P<.01** P<.001***

3. 주부의 심리적 손상

업이 생산직일때 심리적 손상정도가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순으로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1) 주부의 심리적 손상정도의 일반적 경향

〈표 4〉 심리적 손상정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M	S.D	Minimum	Maximum	심리적 손상정도	N	%
심리적 손상정도 (22점 만점)	8.16	4.64	0	22	상집단(13-22점)	79	18.9
					중집단(5-12점)	237	56.7
					하집단(0- 4점)	102	24.4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손상정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전체 심리적 손상정도의 평균은 8.16점(100점 환산치 37.1점)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2) 배경변인과 주부의 심리적 손상정도

〈연구문제2〉인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심리적 손상정도의 차이는 〈표 5〉과 같다.

① 연령 : 연령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아지나 11-15년이 심리 적 손상정도가 낮다.

③ 학력 : 주부의 학력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다.

④ 자녀수 : 자녀수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⑤ 막내자녀나이 : 막내자녀나이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막내자녀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⑥ 가족형태 :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확대가족이 심리적 손상정도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⑦ 남편의 직업 : 남편의 직업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남편의 직

〈표 5〉 배경변인과 심리적 손상정도

변 인	구 분	N	심리적 손상	
			M	D
연 령	30-34세	59	0.46	
	35-39세	155	0.37	
	40-44세	137	0.42	
	45세 이상	67	0.43	
	F값		1.37	
결 혼 지 속 년 수	6-10년	46	0.42	AC
	11-15년	132	0.35	BC
	16-20년	148	0.43	A
	21년 이상	92	0.46	A
	F값		5.54***	
학 령	국 졸	44	0.47	A
	중 졸	133	0.40	AC
	고 졸	204	0.35	C
	대졸 이상	37	0.25	B
	F값		9.07***	
자녀수	1-2명	161	0.39	
	3	155	0.40	
	4명 이상	102	0.44	
	F값		1.19	
	막 내 자 녀 나 이	0- 5세	22	0.36
6-10세		155	0.35	
11-15세		186	0.38	
16-20세		55	0.40	
F값			0.97	
가 족 형 태	핵 가족	358	0.37	
	확대가족	60	0.39	
	F값		0.33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

〈표 5〉 배경변인과 심리적 손상정도(계속)

변 인	구 분	N	심리적 손상	
			M	D
남편의 직 업	생산직	118	0.43	A
	판매/서비스직	92	0.40	AC
	사무직	118	0.35	BC
	관리직	39	0.28	B
	전문직	51	0.29	B
	F값		7.27***	
수 입	49만원 이하	21	0.51	A
	50-69만원	68	0.43	AE
	70-99만원	152	0.38	DEF
	100-149만원	109	0.35	CF
	150만원 이상	68	0.28	B
	F값		7.44***	
종 교	유	269	0.37	
	무	149	0.36	
	F값		0.01	
여 가 정 도	상(16-35)	141	0.38	A
	중(11-15)	125	0.37	B
	하(0-10)	152	0.46	C
	F값		8.80***	
사 회 경제적 지 위	상(10-14)	132	0.31	A
	중(8- 9)	138	0.40	B
	하(3- 7)	148	0.49	C
	F값		27.55***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⑧ 수입 : 수입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심리적 손상정도가 낮음을 보였다. 이는 권경희(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은 욕구충족의 자원으로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심리적인 여유를 주므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⑨ 종교 : 종교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⑩ 여가정도 : 여가정도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여가정도가 하수준인 주부가 중·상수준인 주부보다 심리적 손상정도가 매우 높았다.

⑪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순으로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았다.

4.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과의 관계

〈연구문제3〉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적 손상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부들이 인지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손상정도와 정적인 상관(r=.54)을 나타내었다. 즉,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인지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손상정도도 높아진다.

심리적 손상정도와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의 하위문제 영역별로는 가정경제문제가 가장 높았으며(r=.46) 건강문제, 주부역할문제, 가사노동문제, 가족관계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사건의 변화정도와 디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긴장이 가장 문제시되는 상황이라고 한 배종렬(198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상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도시주부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손상의 중요한

〈표 6〉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정도간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주부역할문제	가정경제문제	가족관계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전 체
심리적손상						
전체 손상 정도	0.41***	0.46***	0.37***	0.40***	0.45***	0.54***

P<.001***

〈표 7〉 심리적 손상에 관련된 변인의 독립적 영향

독립변인	심 리 적 손 상			
	종속변인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F값
건강문제		0.053	0.23	4.68***
가사노동문제		0.047	0.21	4.54***
가정경제문제		0.053	0.20	4.01***
사회경제적 지위		- 0.016	- 0.19	- 4.34***
회귀상수		51.91		
R ²		0.33		

P<.001***

원인임을 알 수 있다.

5. 주부의 심리적 손상정도에 각 변인이 미치는 독립적 영향분석

〈연구문제4〉인 주부의 심리적 손상에 배경변인과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심리적 손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문제 ($\beta=0.23$), 가사노동문제($\beta=0.21$), 가정경제문제($\beta=0.20$), 사회경제적지위($\beta=-0.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3%이었다.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단순상관관계에서 나타났던 주부역할문제, 가족관계문제, 여가활동정도와 심리적 손상간의 관련성은 사라졌다. 즉, 이들은 어떠한 간접적인 관련성만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조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광주시 전업주부가 인지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는 57.32점으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주부역할문제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가정경제문제, 가사노동문제 순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는 현대주부들의 산업화 과정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가정내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역할수행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또, 우리가정이 점점 소비지향적이 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과도한 교육비지출, 제한된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야 하는 주부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인지도와 심리적 손상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나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일때, 수입이 적을수록, 여가정도가 하수준일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일수록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정도가 높아 이들에 대한 계몽과 복지대책이 더욱 요구된다.

3) 주부의 심리적 손상정도는 37.1점(100점 환산치)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인지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손상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상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부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손상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4) 주부의 심리적 손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은 건강문제($\beta=0.23$), 가사노동문제($\beta=0.21$), 가정경제문제($\beta=0.20$), 사회경제적 지위($\beta=-0.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손상정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들변인의 설명력은 약 33%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적 손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량적 접근으로 개인의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 고찰이 가능한 척도 개발과 함께 면접과 관찰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로 방법론적 향상이 요망된다.

둘째, 심리적 손상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에 관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부들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필요하며 주부의 심리적 손상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한 매스컴 및 사회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주부들의 심리적 손상정도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부 스스로가 가정생활상의 여러문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권경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 김경아·이정우,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101-117.
- 3) 김명정·김광일, 히스테리 신경증 환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4(25), 1975, 25-40.
- 4) 나동석,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여성 신경증적 장애환자의 결혼행동에 관한 임상적 연구, 1980,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5) 남유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1989.
- 6) 박난희, 가정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1987,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7) 배종렬,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5.
- 8) 선일선, 생활사건변화와 불안과의 관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1.
- 9) 신영식, 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고찰,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집, 1988.
- 10) 송정명,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불안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5.
- 11) 심인숙, 여성정신장애의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1.
- 12) 왕성근, 신경과 외래환자의 Self-Rating Anxiety Scale에 대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 1978, 179-191.
- 13) 유춘옥, 도시주부의 우울대응행동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5.
- 14) 이광주,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요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15) 이안나,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 유형과의 관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 16) 이정우·최덕경,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115-130.
- 17)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4.
- 18)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 민조사, 1973.
- 19) 장병옥,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5.
- 20) 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8.
- 21) 최동숙, 부부간의 스트레스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989, 165-179.
- 22) 최동희,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부양 행동,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0
- 23) 최승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우울성향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4) 한경미·황덕순,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990, 69-82.
- 25) 홍성희 · 문숙재,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991, 153-174.
- 26) Bernard, J.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68(5), 1976, 6-10.
- 27) Brown, G.W. Life event, Psychitric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3(5), 1981, 461-473.
- 28) Gore, S. & Mangione, T.W.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 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es of sex differ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983, 300-312.
- 29) Gove, W.R. & Greeken, M.R. The effect of childern and employment on mental health of married and woman, *Social Forces* 56, 1977, 66-75.
- 30) Gove, W.R. & Tudor, J.F.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4), 1973, 812-835.
- 31) Jalowice, A. & Powers, H.J.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981, 10-15.
- 32) Lazarus, R.S. & Folkmans,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33) McCubbin, H.I., et al.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1980, 855-871.
- 34) Radloff, C. Sex differances in depression : The effect of occupation and aterial status, *Sex Role* 1, 1975, 249-265.
- 35) Uhlenhuth, E.H.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the city,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1(6), 1974, 757-767.
- 36) Veit, C.T. & Weir, J.E.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1983, 730-742, 권경희 1985에서 재인용.